

세계의 불교음악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는 불교음악이 없다. 힌두교 전통음악인 '드루빠드'가 남아있을 뿐이다. 불교음악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지를 중심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의식음악 범패에서부터 네팔 몽고 등지의 불교전통음악, 유럽에서 재즈 풍으로 재탄생한 불교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불교음악의 '맛'은 어떨까?

한국 범패- 고려대 범창 28가지 의식무 전해

삼국시대에 유입된 한국의 불교음악은 고려 때 번창했다. 갑로탕에 남아있는 의식모습에서는 조선시대의 음악과 의식무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범패를 중심으로 음악과 나비 바라 법고 타주춤 등 28가지 의식무용이 어우러져 전승됐다. 이런 형식의 불교음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987년에는 범패와 불교무용으로 구성된 불교의식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2003년 '영산재'를 처음으로 무대 예술화 시켜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영산작법-니르바나'는 각필악보를 재현해 주목받았다.



중국 범사음악- 출가자 선문·재가자 음문분사로 구분

중국의 불교 범사(法事)음악은 사원에서 출가자 주체로 거행되는 선문 범사(禪門佛事)와 시주한 재가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음문범사(應門佛事)의 두 가지 제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문범사는 다시 도시중심의 경(京)음악과 지방중심의 곽(括)음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곽음악은 북경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곽음악은 북경 교외에서 오랫동안 불사를 거행했던 장광천락사(張廣泉樂社)에서 계승했다. 1986년 문화혁명 속에서 살아남은 예술(藝術)들을 중심으로 북경불교음악단이 창립돼 전 세계에 중국의 불교음악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편 대만과 홍콩의 불교음악은 중국의 곽음악을 이어받아 발전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불광산사가 중심이 된 100명 이상의 스님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통 범패와 창작전불가로 1999년부터 전 세계 순회공연을 할 정도다. 200개에 가까운 불교음악 CD가 출시되기도 했다.

네팔 차르야- 46개 시로 이뤄진 불교수행음악

차르야는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네와르 불교 승려들 사이에 살아남은 연주 전통이다. 차르야의 노래 가사들은 특정 '라가'로 시작해 각각 후렴(드루바)을 가진 2행 연구(連句)로 짜여져 있다. 차르야는 1916년 동인도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46개의 시가 발굴되면서 더 주목받았다. 11세기 작품인 시들은 무슬림이 침략할 때까지 동인도에 잘 알려졌던 불교 '탄트라' '바즈라야나' 학교의 비전 법칙들을 담고 있다. '바즈라야나'의 전통은 노래와 춤 의식을 통해, 첫 입문에서도 한 생애 안에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13세기 후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붕괴했을 때 카트만두 계곡에 남은 '바즈라야나' 전통의 승려들인 '바즈라차르야' 등은 탄트라 교리에 따라 불교의식과 명상과정을 보존했다. 차르야는 네와르 불교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몽고 가곡- 찬미가 형식으로 전승

몽고의 불교 가곡은 성악 가곡 외에 가부 종교가무곡 등 풍부함을 자랑한다. 폭넓은 불교 학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불교음악체계가 구성돼 있는 것이 바로 몽고의 불교 음악이다. 몽고 불교음악은 송경조(誦經調)와 불교가곡으로 나뉜다. 송경조는 몽고 라마가 아침저녁으로 읽거나 법회 등에 사용한다. 불교가곡은 송가와 찬미시 장언시 의식가곡 서사가곡 등을 포함한다. 중국과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몽고는 찬미가 형식으로 불교음악이 전승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도움말 및 자료제공=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BBS '불교음악의 세계' 진행자)

선을 달라도 감동은 하나

티베트 성악- 음색·선율 결여로 아주 독특

티베트 불교성가는 티베트 대중음악과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티베트 대중음악이 이웃민족의 음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비하여 불교 성악은 음색과 선율의 결여로 아주 독특하다. 이 성악이 5·7·12 음정으로 나눌 수 있는 옥타브의 순환구조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은 인도음악에서 파생된 음계와 선율을 지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별한 음악행식은 티베트 불교성악을 대중음악이나 다른 모든 전통 불교 음악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티베트는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6개 정도의 큰 학파가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밀교의 '진언'과 얼굴에 발을 쓰고 춤을 추는 의식무인 '참'이 매해마다 큰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일본 성가 쇼묘- 찬불가 없이 의식만 남아

일본의 전통 불교성가는 '쇼묘(聲明)'라고 부른다. 진언종과 천태종을 중심으로 계승돼온 쇼묘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음악교육이 서양음악 중심으로 바뀌면서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진언종 천태종이 의식음악 중심으로 해외공연을 하고 있다. 1900~20년 서양음악 전공자들에게 의해 10여 곡의 창작찬불가가 생겨났다. 그러나 일본에는 지금 찬불가가 없다. 의식은 스님만 하는 것으로 정착되다 보니 창작찬불가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이다.

미국·유럽- 재즈 등으로 다양하게 재생산

기독교권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명상, 선불교,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불교명상음악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명상음악은 재즈나 팝 형식으로 발매되고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불교음악이라는 장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뉴에이지 음악들이 생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루 종일 불교음악만 틀어주는 붓다바(Buddha Bar)도 성행하고 있을 정도다. 96년에 문을 연 프랑스 붓다바의 DJ 클로드 샬은 99년 컨셉레이션 앨범 '붓다바' 시리즈와 '니르바나 라운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붓다바 시리즈는 프랑스에서만 100만장이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 음반이다. 동국대 국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유럽에서는 한국의 범패를 '신의 목소리'라 찬사하며 깨달음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등 동양의 사상과 불교 음악에 매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kg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www.so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대한민국 명장)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트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인공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양이온 계서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화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지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땅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트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편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불자기업 (주)에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에간하이텍)

제품 가격

- 스님용침선방식: 180,000원
- 참선방식: 145,000원
- 절방식: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94,000 - 98,000원
- 지동차방식: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